



본 연구소에서는 UFO의 실체와 우주철학에 대하여 쿠보다 하찌로우(久保田入郎)씨의 글을 편역하여 나누어 게재하고자 합니다.

20C 중반에 이르는 지금, 인류는 외계생명체 탐색을 위한 우주탐사활동에 힘찬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주생명체가 존재하는가? UFO는 실재하는가?의 문제는 긴시간동안 여러사람들에게 회자되어 왔습니다. 많은 UFO 목격자들이 있고 이들이 전부 환상을 본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UFO 현상에는 인류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으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목격할 능력도 과학적 수준도 미달하기 때문에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UFO는 허구일 수도 있지만 인류의 시각을 UFO의 물체 그 자체에 국한해서는 UFO의 실체를 올바르게 규명해내기 어렵습니다. 인류가 철학(영혼)과 물질의 관계를 확실히 파악할 때 비로서 UFO는 그 진정한 의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게재할 글은 인류가 달에 가기 훨씬전인 1953년과 1955년 외계인과 접촉한 뒤 “비행접시 착륙하다(Flying Saucers Have Landed)”와 “우주선 안에서(Inside the Space Ship)” 등을 저술하여 UFO의 권위자로 꼽히는 조지·에담스키의 우주철학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우주철학을 UFO와 우주철학의 연구단체인 「일본 GAP」을 주재하며 조지·에담스키 지지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전문지 「UFO Contactee」지를 발행하고 있는 일본인 쿠보다 하찌로우(久保田入郎)의 UFO와 우주철학의 행방을 편역한 것입니다.

이 글은 UFO의 목격, 피랍, 접촉과 이에 더불어 UFO현상에 종교적인 측면의 해석을 덧붙인 UFO에 관한 총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하여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확연히 구분하는 인류의 현재 과학 패러다임 안에서는 UFO의 본질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UFO와 우주철학의 행방

— UFO와 외계인 문제 —

항공우주연구소 편역

조지·애덤스키와 우주철학

20세기도 몇 년 남지 않았다. 시대는 급템포로 흘러서 세기말적 사상이 만연하고 각종 비관적인 예언, 특히 지구인류의 소멸, 심하게는 지구자체의 종말론까지 난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페시미즘(비관사상)이나 염세론 등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던 것으로 세삼스레 대두된 것은 아니다. 19세기 말에도 이러한 비관적 사상이 문예사조에서 나타난 적이 있다. 또한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하루마게돈(세계최후전쟁)에 관한 바람직하지 못한 설도 항간에 전파되어 있는 것 같다.

하루마게돈에 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해석이 통설로 굳어져 있는 듯 하다. 왜냐하면 하루마게돈이란 본래 헤브라이어인 「메기도의 언덕」을 음으로 번역한 그리스어으로써, 이말 자체에 세계최후전쟁이라고 하는 의미는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해의 북서쪽으로 약 90킬로 지점에 있는 지중해 부근의 고대도시 유적인 메기도가 옛 전쟁터로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한묵시록 16장 16절의 「더러워진 영혼들은 헤브라이어로 하루마게돈이라 불리우는 곳에 왕들을 모았다」라는 기술(記述)을 곡해해서 이말에 세계최후전쟁이란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묵시록으로부터, 악마가 신에게 최후의 결전을 청하리라는 사상이 조성되어(그런 기술은 존재하지 않지만) 20세기말이나 다음 세기 초에 세계최후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종교단체도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와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는 듯 하나 세계의 현황으로 봐서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제 3차대전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요한이 아무리 위대했다고 하지만 2천년 후의 현대상황을 미래투시하고 있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 요한묵시록은 확실히 미래에 대한 예언서이기는 하지만 이는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관한 예언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대혼란은 없다고 해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는 끊임없이 불안이나 공포가 뒤따르고 있다. 국지적 분쟁의 전쟁이나 대지진, 그리고 그밖에 세상의 이목을 뒤흔드는 대사건등이 끊이지 않는다. 인간 개개인의 운명따위는 소용돌이치는 대해에 떠도는 나뭇잎처럼 농락당하고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나 허무감이 끝도 없이 솟구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바라며 아버규환의 갈림길을 헤매고 있는 시점인 것 같다.

태양계 혹성군의 진상

그래서 많은 종교단체가 「나에게로 오라.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계중에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유리하다고 유혹하여 금품을 긁어 모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예로부터, 종교는 인간 또는 인종간의 대립, 항쟁, 참극의 씨앗이 되었을 뿐, 세계 평화를 확립한 적이 없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는 종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교조 사후에 확립된 교단이 권력의 증대화를 도모하려고 다른 종교와의 알력을 일으키기 때문으로 동일 종교내의 파벌싸움마저 발생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불신감이 젊은이들 사이에 발생하였고, 제2차대전은 물질문명에 해를 입은 유물사상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결부되어 결국 젊은 사람들의 반권력 투쟁이 각지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까지나 길을 잃은 양이 아니다. 뭔가 핵심을 간파하고 현상을 타파하려고 한다. 이를 지도하는 위인현자도 배출해 왔다. 그 한사람이 조지·에덤스키이다. 아직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이 인물이 어떻게 그러한 대단한 체험을 했는가에 관해서는 그의 저작 「신 에덤스키 전집」전 10권에 상술되어 있다. 요컨대 그는 전인미답의 우주적 일을 체험한 것이다.

그의 주장과 체험을 대강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우리의 태양계에 존재하는 혹성은 9개가 아니고 모두 12개이다.
- (2) 그 12개의 혹성 모두에 고도로 진화한 인류가 살고 있고, 위대한 운명을 구축하고 있다. 병·빈곤·전쟁등이 없는 천국같은 사회가 발달하고, 과학도 경이적인 진보를 이루고 있다. 지구는 12개중 최저위 단계에 있는 혹성이다.
- (3) 그 혹성군의 주인(영어로는 Space People 이라 한다)은 정신적으로도 고도의 발달을 이루고 있고, 특히 텔레파시, 원격투시의 능력을 갖고 있으며, 만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절대적인 평화생활을 하고 있다.

(4) 그들은 과학도 경이적인 진보를 이루고 있고 특수한 우주선을 개발해서 우주공간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다. 그 우주선은 크게 혹성간, 태양계간, 은하계간을 항행하는 초대형의 엽권형대모선과 이것에 탑재하는 소형의 스카우트쉽으로 나뉜다. 목적지인 혹성에 접근하면 모선으로부터 스카우트쉽이 발사되고 착륙후, 탑승하고 있던 여러명의 승무원이 기체(機)밖으로 나와 활동한다. 그들의 우주선은 중력장을 발생하는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추진력은 전자기적인 것이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스피드로 우주공간을 항행하지만,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중력장이 승무원의 육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승무원에게도 아무런 지장도 없다. 선체는 특수한 초경질의 금속으로 제작되어 있고, 선체 주위에 force field를 방사해서 이것이 선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주공간에서 운석과 그밖의 물질에 충돌하는 일은 없다. 지구상공에서 그들의 우주선이 목격되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인은 Unidentified Flying Object(미확인 비행물체)의 약칭으로서 UFO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 물체는 툴럼없는 금속체의 초고도 우주선이고 영적인 물체는 아니며, 4차원 세계에서 온 것도 아니다.

(5) 다른 혹성군의 주민들은 지구인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간으로써, 영혼이나 요괴가 아니다. 그 육체는 혈액이나 내장 등을 가진 보통의 인간이지만 지구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긴 수명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금성인은 지구식으로 환산해서 이삼백세의 연령이면서, 외관은 20세 안팎의 지구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다른 혹성군의 파동이 지구보다도 훨씬 고차원이고, 그들의 육체로 고차원의 파동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6) 그들의 겉모습은 지구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구로 날아와서 사회에 깊숙히 파고들어 표면상으로는 지구인 행세를 하고 온갖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사회를 관찰하거나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지구인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지구를 정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구의 발전을 비밀리에 원조하고 있는 것이다.

(7) 지구사회에서 우주인에 의한 지구인 유괴사건이나 가축도살사건이 발생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대부분 silence group(우호적인 외계인의 존재를 일반인들로 하여금 의식하지 못 하려 하려고 암약하는 그룹)의 소행으로써 진짜 우주인과는 관계가 없다.

(8) 그들 우호적인 외계인은 텔레파시, 원격투시, 그 밖의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고도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들의 우주적인 철학은 지구인에

게도 극히 유의한 것이다.

진상을 은폐한 미국정부

이상과 같지만, 1952년 11월 20일에 미국·캘리포니아주의 사막센터라고 하는 사막지대에 착륙한 금성의 스카우트쉽에서 내려선 금성인 한 명과 회견한 애덤스키의 체험은 당시 전 미국의 화제를 독점했고, 또 이 사건에 관해서 애덤스키가 쓴 최후의 체험기 「비행접시는 착륙했다」는 세계 십여개국어로 번역되어, 전후 UFO 연구계의 입문적인 서적이 되었다. 그러나 그후 미국이 혹성탐사기를 쏘아 올려서 금성, 그밖의 혹성을 조사한 결과, 금성은 섭씨 500도에 가까운 고온의 지표를 가진 혹성이란 것이 판명되었다고 공표했기 때문에 애덤스키의 체험기는 불리하게 되었고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쓰게끔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사실이 숨겨져 있다. 과거 20회 가까이 철저히 조사한 바로는 애덤스키의 체험기 내용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게다가 미당국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극비로 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즉 금성의 온도를 사실과 다른 수치로 발표해서 진상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애덤스키는 생전에 케네디 대통령과 친교가 있었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케네디가 애덤스키의 우주적 체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UFO와 같이 화석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Free energy에 의한 우주선의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암살원인이 되었는지 어쨌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는 일반인에게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다.

애덤스키는 독일의 로켓 개발의 아버지로서 칭송을 받은 헤르만·오베르트 박사와의 친교가 있었는데 오베르트 박사도 다른 혹성으로부터 위대한 외계인이 지구로 날아온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외계인들이 자신의 과학연구를 원조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 밖에 애덤스키에 관한 경이적인 사실은 수없이 많지만 자세한 내용은 애덤스키 전집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내막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애덤스키를 사기꾼이라 부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애덤스키의 체험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일반지구인의 눈이 우주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는 Silence group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거기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지만 여기서는 밝히고 싶지 않다.

인간을 구원하는 우주철학

애덤스키가 외계인으로부터 배운 과학적·정신적인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철학이다. 이 우주철학은 인간을 각성시켜서 크게 개안시키고, 대우주와 인

간을 일체화 시킨 후 텔레파시, 원격투시, 그 밖의 초능력을 개발해서 올바른 운명을 형성시키는 일대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인간의 우주적인 성장을 촉구하는 진리로서는 그 이상의 것이 없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애덤스키 전집 제 2권 「초능력 개발법」, 제 3권 「21세기 생명과학」, 제 7권 「21세기의 우주철학」에 상술되어 있다. 이 3부작을 「애덤스키 철학」이라고도 하고 「우주철학」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시종일관 우주적 사상에 관한 것이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우주는 하나의 「의식」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이것을 애덤스키는 「우주의 의식」(Cosmic Consciousness)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생명력이나 예지를 포함하는 근원적 요소로써, 말하자면 「우주의 창조주」와 같은 뜻이다.

(2) 지구 만물도 이 「우주의 의식」에 의해 형성되어 유지되고 있으며 인간도 이것에 의해 살아 가고 있다.

(3) 다른 혹성의 주민은 모두 이 「우주의 의식」을 자각하고 있으나, 지구인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체만으로 살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 때문에 육체에 고장이 생기면 물리화학적 처치를 하지 않으면 낫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4) 그러나, 실제로는 인간의 상념과동이 육체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신은 병에 걸린 약한 육체의 소유자라고 믿게 되면 믿는 그대로 되는 반면 병따위에는 걸리지 않는 강한 육체의 소유자라는 긍정적인 상념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은 쉽게 병에 걸리지 않는다. 병에 걸려도 강력한 상념의 힘으로 대개의 경우는 치유된다.

(5) 자신의 전신은 「우주의 의식」이라고 하는 우주전체를 지탱하는 힘과 예지의 일부분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는 상념을 끊임없이 지속한다면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발전을 할 수 있다.

(6) 인간의 내부에 머무는 「우주의 의식」은 만사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mind(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부의 의식으로부터 오는 인상(소리)을 알아 들으려고만 하면 마음으로는 입수 불가능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텔레파시에 의한 수신 원리이다

(7) 지구인의 마음은 보통 4개의 감각기관이 갖는 의지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이 4개의 감각기관이란 「눈」 「귀」 「코」 「입」이다. 이들 각 기관은 외계의 사물에 대해서 각자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그 때문에 마음에 혼란이 생긴다. 이 상태를 인간의 「마음의 미혹」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마음이 혼란한 상태로는 내부의 「우주의 의식」으로부터 오는 인상(소리)을 느낄 수가 없다. 이러한 현상을 텔레파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사관(4개의 감각기관)을 가라앉히고 일체화 시키는

훈련을 행할 필요가 있다.

(8)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내부에 「우주의 의식」과의 일체감을 높이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만물과의 일체감을 높이기도 한다. 그렇게 하면, 텔레파시 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강화되고, 굉장히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운명을 호전시킬 수도 있다.

(9) 인간은 상념파동을 끊임없이 외계로 방사하고 있다. 이것은 불꽃이 튀는 것 같이 온갖 방향의 공간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텔레파시 할 수 있는 인간은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것을 수신해서, 송신자의 상념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다.

(10) 원격투시력을 개발하는데는 자신의 양 손등 또는 한쪽 손 등을 장기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멀지 않아 손의 피부를 통해서 내부의 혈액 흐름이나 뼈마저도 보이게 된다. 또 손에서 발생하는 오오라(후광)가 보이게 된다. 이것들은 원격투시력이라는 오오라(후광) 투시력의 시작이다.

(11) 바람직한 일을 실현시키려면 그 일이 이미 실현되었다는 이미지를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명료하게 그리도록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실현된다. 이것은 인간의 상념파동에 의해 바람직한 일을 끌어 당기거나 자신이 끌려가는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이론은 4개의 감각기관을 통제하라는 가르침이다. 이는 그 어떤 교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이론인데 이 이론이 맞다는 사실은 우주인에 의해 이미 확인되었다고 애덤스키는 말하고 있다.

UFO 문제와 세계의 운명

기묘한 광채

1988년 9월 25일 오후 1시부터 동경의 긴자7가에 있는 가스홀에서 시작된 일본 GAP총회회장은 가득찬 청중으로 열기가 넘치고 있었다. 이 날은, 애담스키의 수제자였던 아리스·포말로이 여사가 미국에서 내일(來日)해서 대강연을 하는 날이어서 전국에서 회원들이 몰려들어 여사의 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지·애담스키의 추억과 우주철학」이라는 강연제목을 사회자를 말한 뒤 필자가 먼저 무대로 나와 20분간의 인사를 했다. 강연에는 익숙해 있었으나 다소 긴장하면서 일본 GAP활동의 연혁 설명과 여사의 소개를 했다. 객석의 대부분은 어둡기 때문에 무대쪽에서는 손님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강연자에게 있어서는 좋은 상황인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모든 청중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쪽이 내경우에

는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다. 그 때, GAP회원의 한사람인 A씨는 2층객석의 전방중앙부근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의 주된 일은 촬영이었다. 후일 여사에게 사진을 보낼 생각으로, 여러 위치에서 콤팩트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는데 내 강연중에는 2장 정도 촬영했다. 그런데 총회가 끝날 즈음 회장에 두 사람의 우주인(우호적인 외계인)이 와있었다는 등, 무대 위의 공간에 초소형 원반이 떠 있는 것을 여러명이 봤다는 등의 소문이 퍼져서 혹시하는 생각에 후일 필름을 현상했더니 아나나다를까 나를 찍은 사진의 오른쪽 위에 작은 광점(光点)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당초 필름상의 흠이겠지라고 생각했으나 광점의 부분을 크게 확대한 사진을 10월 25일에 피점측자 M씨에게 보인 결과, 다음과 같이 확증했다. 「분명히 우주인의 파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점은 원반 그 자체가 아니라, 어디에서인가 우주인이 조작하여 방사한 빛 같습니다. 무언가의 신호로서 사진에 찍힌 것이겠죠」 A씨는 촬영때에는 광체를 깨달지 못했다. 프린트한 후, 조사해 본 결과 알았던 것이다. UFO사진에는 이러한 예가 많다. UFO의 목격이나 촬영에는 UFO측의 배려와 당사자가 가진 운명적인 요소가 큰 원인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

광체가 찍혀있는 다른 사건

한편 총회에서의 강연 중에, 한사람 더 기묘한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있었다. 가가와 현에 사는 세끼다가 아끼씨이다. 그 사람은 87년 9월부터 일본 GAP 다카마쓰 지부를 설립하고, 대표로서 GAP의 지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열성 회원이다. 그 사람이 찍은 내 사진의 윗부분에 하얀 원의 일부 같은 빛이 크게 찍혀 있었던 것이다. 이것도 M씨에게 보인 결과, A씨 촬영의 광체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우주인의 조작에 의한 빛으로 스캐닝 디스크가 아니라고 했다. 아마 본인에게 무언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신호일 것이라고 했다.

이하는 세끼씨로부터 온 편지의 일부이다.

「동경본부 통신9월·10월호에 우주인과 초소형원반이 출현했다고 써어 있어 놀랐습니다. 특히 초소형 원반이 출현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본부통신을 모두 읽은 뒤, 문득 총회에서 찍은 사진중 이상한 사진이 있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동봉한 사진의 상부가 하얗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실수로 인하여 카메라의 안뚜껑을 열었던지, 필름의 처음부분 때문에 빛이 들어왔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필름을 보면, 처음것은 사회자의 인사사진이고, 동봉한 사진은 필름 3장째에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촬영중이나 필름을

되감던 중에 카메라의 안뚜껑을 열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우주인의 축복 상념 파동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오늘 받은 동경본부통신을 읽고, 이 사진이 초소형원반과 관계가 있을 것 같아 동봉한 사진에 대해 조사를 의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코쿠에서 GAP 활동을 전개한 세끼씨에게 우주인이 보낸 축복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것을 입증하는 물적증거는 없다. 그러나 M씨의 초능력은 대단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증언을 신뢰해도 좋을 것 같다.

총회회장에서 광체를 목격한 사람

사실은 총회회장에서 이 이상한 광체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 일본 GAP본부 임원인 엔도·야기노리씨(치바현 거주)가 바로 그 사람이다. 포말로이 여사의 대강 연과 질의응답이 대갈채 속에 종료된 직후, 2층객석에서 무대를 보고 있던 그는 '앗' 하고 놀랐다. 맞은편 우측 무대위 약 2미터의 공간에 작은 광체가 떠있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그것은 몇초내에 사라졌지만 틀림없이 "광체" 바로 그자체였던 것이다. A씨가 촬영한 광체와 같은 것이라면 그것은 총회개회때부터 완료때까지 회장에 있었던 셈이 된다. 몇초 내에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역시 디스크(원반) 그 자체가 아니고 빛이었던 걸까? 진상은 불분명이지만 UFO를 잘보는 초능력자 엔도씨의 말이니까, 이 목격도 착각이나 환각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구라마에바시 도로에서 본 아름다운 비행 접시

이런 일도 있었다. 1988년 7월 18일 오후 5시가 지나서, UFO contactee지 102호를 전국 회원에게 발송하기 위해 2대의 차에 싣고, 간다 우체국으로 향하고 있었다. 선두차는 엔도씨가 운전하고, 후속차는 나카사토 노부히코씨(치바현 건주) 혼자 운전했다. 구라마에바시 도로를 지나고 있는 동안, 오후 5시 55분경 가메이도 4가 부근에서 갑자기 엔도씨가 외쳤다.

「앗! 원반이에요! 비행접시가 날고 있어요.」

엔도씨가 왼손으로 가르킨 왼쪽 방향을 보자, 진주모양의 은백색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원형물체가 「타가루」라고 쓰여 있는 간판위를 지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남에서 북으로)이동하며, 먼 지평선 위를 저공으로 유유히 날고 있었다. 약간은 반달모양을 그리면서 비행하는 그 물체는 꼭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려고 하는, 하늘을 나는 선녀처럼 느껴졌다.

외관상의 크기는 내 오른손을 쪽 꺾을때의 새끼 손가락의 손톱정도로써 목격시간은 10초 남짓이었을까? 물체는 창공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사라져 버렸다. 후속차의 나까사또씨도 봤다고 했다. 우리 두사람이 앞쪽 하늘을 가르키며 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보고 UFO의 출현이라고 짐작했던 것 같다. 이 비행접시는 아무리 봐도 우리들에게 모습을 보이기 위해 출현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시계가 양호한 위치와 타이핑으로 볼 때, 그렇게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역시 우주인의 촉복과 격려의 사인이었을까? 이런식으로 말하면, 정말이지 주관적이고 낭만적이며 비과학적으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죠지·애덤스키가 그의 저서 「제2혹성으로부터의 지구방문자」서 전했던 다른 혹성의 월등히 뛰어난 문명과 과학은, 지구인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고, 애덤스키와 같은 체험을 한 일본인 M씨의 체험기 「UFO와 외계인의 진상」에도 우주인의 고도로 발달한 과학과 정신상태가 극명하게 서술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정신이 아찔해질만큼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낭만으로서 현재 수준의 과학의 연구대상으로 삼기에는 아직도 먼 얘기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과학적인 시나 문장의 재료정도로 머물러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UFO문제는 지구인에게 있어서 극히 중대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국은 태양계의 진상을 숨기고 있다.

몇번이나 언급했듯이, 애덤스키에 의하면 우리 태양계에는 9개가 아니라 12개의 혹성이 있고 게다가 그 모두는 위대한 발달을 이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문명을 갖고 있으며, 천국같은 평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열등한 혹성은 지구뿐으로 이곳은 정말로 지옥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누구나 커다란 의문이 생길 것이다. 우주개발에 의해 혹성탐사기가 태양계내의 각 혹성을 조사한 결과, 지구 이외의 혹성에는 생물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 졌는데, 왜 각 혹성에 인간이 살고, 문명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바보같은 소리라고, 치부할지도 모른다.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 한마디 밖에 없다. 「미·러의 우주개발기관의 최고급 과학자는 혹성탐사기에 의한 조사결과, 지구이외의 혹성군에 인간이 살고, 경이적인 문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현단계에서는 발표할수 없기 때문에 은폐공작을 하며, 반대의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이다」 왜 현단계에서는 발표할 수 없는 것일까? 발표하면 세계에 대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실을 공표하게 되면 학자의

권위실추, 교육체계의 붕괴, 산업계의 동요, 주가의 대변동, 경제계의 혼란등 그 악영향은 끝없이 확대되고, 마침내는 대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미우주 개발기관의 일부 과학자는 금성 등에 눈부신 문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지만, 함구령에 의해 일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미국의 UFO연구가가 말한 적이 있다.

UFO와 금속제의 우주선

UFO(미확인 비행물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이웃 혹성군에서 지구로 날아온 우주선이다. 애덤스키에 의하면 혹성간을 항행할 때는 엽권형의 대 모선을 사용한다. 이것에는 길이가 수백미터인 것에서부터 거대한 것은 수킬로미터에나 이르는 것이 있고 내부는 마치 인공적인 우주도시처럼 되어 있다고 한다. 이 대 모선에 세관에서 흔히 비행접시라고 불리는 소형의 몇 사람이 탈수 있는 스카우트 쉽(정찰선)을 다수 적재하고, 지구와 같은 혹성에 접근한 후에는 스카우트 쉽을 내보낸다. 이 스카우트 쉽은 대기권 내를 비행하기도 하고, 저공으로 날기도 하며, 때로는 지상에 착륙하여 연구조사용으로 토양, 그 밖의 표본을 채취하기도 한다. 혹은 안에서 승무원이 나와 지구인과 접촉하는 일도 있다. 또는 조사봉의 초소형 스캐닝 디스크를 날리기도 한다. 이러한 대 모선이나 스카우트 쉽의 추진법은 지구의 과학으로는 아직 해명할 수가 없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들 우주선이 인공적인 중력장을 발생시키고 있고, 그 때문에 선체가 무중량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약간의 추진력으로도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 수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것이다. 이것은 혹성의 공전 자전과 인력발생의 원리를 응용한 것 같고, 스카우트 쉽이 만약 시속 일만킬로로 지그재그 또는 급속 유턴을 해도 내부의 인간은 중력장의 권내에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 인간의 육체세포 전부가 인공 인력에 끌어 당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선체 내부에는 공기가 있고 선체의 외부도 공기 층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외부 공기의 기체 분자가 선체의 force field에 의해 이온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의 빛을 띤다. 야간에는 스카우트 쉽이 특히 오렌지 색을 보이는 일이 많다. 그 밖에 빨간색, 녹색 등 많은 색으로 변화하지만 이것은 선체 자체의 색은 아니다. 선체는 초경질의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다. 애덤스키에 의하면 반투명의 금속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지구과학 수준으로는 불가해한 설명인 듯 하다. M씨는 화성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특수한 광석을 증거 물건으로서 화성인에게 받았다고 하며, 그것을 내가 맡아서 어느 대학과 민간의 어느 대형연구소로 조사를

의뢰한 일이 있다. 그 결과 놀랄만한 성질의 것임이 판명되었는데 이 광석도 형광 등 처럼 밝은 빛에 가까이 대면 반투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쨌든 소위 UFO라고 하는 것이 4차원의 세계에서 온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물체이고, 지구로 접근해서 3차원공간내로 들어오면 물질화되어 가시적이 된다고 하는 설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단극자기가 중대한 열쇠

물리학의 정통한 사람은 역 2승의 법칙을 생각해 낼 것이다. 태양으로부터 나온 방사선은 거리의 2승에 반비례해서 약해져 간다고 하는 법칙이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대단히 급경사의 곡선을 그린다. 따라서 지구보다 먼 혹성군(이것을 외혹성이라고 한다)에 지구와 같은 빛이나 열이 주어질 리가 없다고 하며 반론할 것이다. 역 2승 법칙은 진리이겠지만, 태양계의 경우는 이것이 들어 맞지 않는다고 하며, 애덤스키는 TV 브라운관의 원리를 예로 들어 설명하며 세종류의 아스테로이드대의 가속작용에 의해 명왕성이나 그보다 외측의 먼 혹성까지 지구와 같은 빛과 열이 주어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신 애덤스키 전집 6권 「UFO의 수수께끼」에 수록) 그런데 M씨에 의하면 태양 광선이 전혹성에 똑같이 도달하는 데는 단극자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한다. 이 단극 자기라고 하는 것이 지구 과학의 최후의 과제이겠지만 대단히 심원난 해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명하는데는 지구인이 모두 나와 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다른 혹성 우주선 추진원리도 단극자기가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지구의 과학이 타 혹성과 동등한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아득한 먼 미래의 얘기라고 할 수 있다. 평음을 내며 제 세상인양 거리낌 없이 날아 다니는 지구 항공기의 분사추진방식은 외계인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원시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태고적 유물에 불과할 것이다.

우에노 역에 있던 외계인 부인

다른 혹성에서 온 사람들을 영체로 보는 설도 있지만, 이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 그들도 인간이므로 당연히 지구인과 같은 모습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 뼈, 혈액, 근육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인체이고, 외관도 지구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게다가 지구상에서 지구인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적당한 이름을 갖고 있으며, 직업을 갖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전혀 정체를 알아채지 못한다. 내가 우연

히 만났던 외계인들도 동양인 형, 백인형등 여러 가지였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다. 겉보기에도 지구인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이런식으로 그들은 지구인을 원조하기 위해, 비밀리에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1988년 7월9일(토요일), 도쿄 우에노 공원의 도쿄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던 일본 GAP 도쿄본부 7월 월례세미나에 본부임원 엔도·이끼노리씨는 다른 일이 있어서 늦었다. 우에노 역의 「공원출구」로 나오자 마자, 그는 깜짝 놀라며 눈을 반짝였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다른 흑성에서 온 부인이 서있었던 것이다. 나이는 27-28세 정도로 용모는 중간키에 보통 몸집으로써 완전히 일본인 형이었다. 블라우스의 스커트, 하이힐 복장은 그 근처의 사무직 여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외계인이라는 것은 그녀의 몸으로부터 방사되고 있는 오오라로 알 수 있었다. 그 오오라는 청색이었는데, 지구인으로서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아주 맑고도 투명한 무한의 심미를 머금은 청색이었다. 그 여성은 우주철학의 해설강의가 시작된 도쿄월례 세미나 회장쪽 방향을 올려다 보면서 서 있었다.

중요한 오오라 투시능력

엔도씨는 오오라를 볼 수 있는 투시능력자이다. 1983년 8월에 일본GAP 해외 연수 여행에서 필자 일행이 바티칸의 산피에도르 대사원에 들렀을 때, 필자와 엔도씨 외에 여러명이 까만 승복에 몸을 감싼 백인 형의 금성인과 회견했었는데, 우에노 역의 외계인 부인과의 우연한 만남은 그 이후였다고 엔도씨는 말했다.(앞에서 언급한 바티칸에서의 일은 다음장에 게재되어 있다)

- 오오라 투시능력은 중요하다. 오오라는 만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으로, 물체(인간의 경우는 육체)의 질, 인간 정신상태 등의 변화와 연동해서 파장이 변화하는 것인데 과학적으로는 아직 미해결상태이지만 오오라 투시능력을 가진 사람은 윤 좋게 색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경우는 정신적으로 차원이 낮은 상태에서는 빨간색, 고차원이 됨에 따라 보라색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개개인의 정신수준에 따라서 그 사이의 색을 나타내고 있다. 매우 고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보라색을 넘어 백은색으로 다시 황금색으로 바뀌는 듯 하지만, 지구인에게서는 좀처럼 볼 수 없다고 한다. 청색이나 보라색의 사람은 지구인 중에도 가끔 있지만, 우주인의 경우는 같은 청색이라도 탁하지 않고 투명도가 높은 색이라고 엔도씨는 말한다. 그래서 상대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일반인에게는 자신의 오오라는 물론 타인의 오오라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늑대 같은 인간이 양의 탈을 쓰고 있어도 속이고 행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오오라만은 절대로 숨길수가 없다. 아무리 성자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도 마음이 저차원인 상태에 있으면, 그 나뭇대로의 빛깔을 띤 오오라를 내보내는 것이지만 본인은 물론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전 도쿄 월레 세미나에 자신이야말로 애덤스키 철학 탐구에 가장 열성적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듯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오오라는 어두운 간장 같은 색으로, 대단히 탁한 상태였다고 엔도씨가 말했다. 그 이후 그 사람은 도쿄월레 세미나에 오지 않았다. 이 사람은 실제로는 미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듯 하다. 그후 엔도씨는 88년 9월 총회에서 오랜만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최고다」라는 오만함을 나타내는 오오라를 내보내고 있었다고 한다. 인간은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자신의 마음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소용없는 것이다. 반대로 구도적인 사람에 있어서는 자신의 오오라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순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오라는 자신을 분기시키는 것이다. 단 오오라에 의해 타인을 차별하는 것은 우주적인 인간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주철학에 의한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오오라의 성질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이적인 외계인의 정신 수준과 과학

고도로 진화한 외계인이라 하더라도 육체적으로는 지구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도깨비 같은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지만, 항간에 그와 같은 물체의 복격사건이 전해지는 것은 무엇인가의 오인, 착각, 정보조작, 가공의 이야기중 어느 하나일 것이다. 외계인이 지구인과 크게 다른 것은 대단히 고차원적인 정신성이라고 애덤스키와 M씨는 말한다. 그들은 텔레파시, 원격투시, 그 외에 초인적 능력을 갖고 있고 절대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랑과 조화의 정신으로 살고 있으며 병도 전쟁도 없고, 천국같은 사회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 언급한 대로이다. 또 그들의 과학기술도 지구인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고, 혹성의 중력을 차단하는 거대한 우주선을 건조해서 혹성간, 태양계간을 자유자재로 날아 다니고 있다. 그들은 빛을 조절하는 월등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투사된 빛을 공간에서 정지시키거나, 비틀어 구부리거나 한다. 대 모션 내에서 빛을 공간에서 정지시키고, 거기를 스크린 화해서 입체영상을 보여주어서 경탄했다고 애덤스키는「제2혹성으로부터의 지구방문자」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M씨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것은 사실인 듯 하다. 지구의 홀로그래피와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다르다. 홀로그래피는 레이저 광선을 물체에 쏘이고, 그뒤에 나오는 빛과 원래 빛의 간섭패턴을

감광판에 촬영해서 이것에 다시 빛을 쏘여서 입체상을 재현시키는 것이지만, 외계인의 방법은 감광판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피사체”인 물체에서 나오는 빛을 그대로 선대로 도입·증폭시켜 공간으로 방사하고 공간에서 정지시키는 것 같다. 지구인이 이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는데는 수천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빛을 조절하는 기술

외계인은 빛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물체를 인간의 눈에 보이게 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두사람의 인간(지구인)이 하늘을 바라보고 한사람은 거대한 UFO를 목격했지만, 옆에 있는 다른 한 사람에게서는 아무리 해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예가 종종 있다. 이 경우는 A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선체의 빛을 보내고, B라고 하는 사람에게에는 보내지 않는다는 기술상의 조작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들이 물체를 보고 그 존재를 지각하는 것은, 물체자체에서 나오는 빛을 육안으로 포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빛이 차단되면 물체는 보이지 않는다. 이 간단한 원리를 응용해서 우주인은 지상 지구인중 어떤 사람에게는 UFO의 선체를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에는 보여주지 않는 듯하다. 공상과학소설에서 말하는 평행공간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는걸까? 이 이유는 알 수 없다. 짐작컨데, 그 사람의 정신적 발달단계, 성질, 문명적인 요소 등에 따른다고 생각되지만 진짜 원인은 알 수 없다. 같은 식으로 인체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넓은 장소에서 방금 막 만났던 인간이 갑작스레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실례가 때때로 발생하는데 이것도 빛을 조절하는 기술에 의해서이고, 상대의 육체는 거기에 존재하지만 보는 쪽의 사람에게는 소멸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때에 우주인을 에테르라고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옳지 않다. 그들은 굉장한 과학기술을 가진 현실의 살아있는 육체인간인 것이다.

루르드와 파티마의 기적

여담이지만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옛날 프랑스 남부의 루르드에서 발생한 성녀 베르나데트의 기적적인 사건이다. 1858년 2월 루르드 시가의 변두리 맛쓰비에유의 동굴에서 14세의 소녀 베르나데트·스비루는 15일간 연일 이 장소에서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 장시간동안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다른 사람에게에는 보이지도 않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현재는 현지에 대성당이 건립되고 일대 성지가 되어 있다. 그러나 베르나데트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조사해 보아도 본인은「성모 마리아와 만났다」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15.6세의 절세 미녀”를 성모 마리아로 만들어 버린 것은 주위의 신봉자들인 것이다.

이하는 나의 추측이다. 맛쓰비에유 동굴의 상공에 다른 혹성에서 온 대 우주선이 정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빛을 조절하는 기술에 의해 베르나데트에게만 절세 미녀의 입체상을 보여준 뒤, 특수한 광선을 사용해서 그녀에게만 들리는 음성파를 보냈다. 베르나데트의 상념은 텔레파시에 의해 상공에서 포착할수 있기 때문에 두사람의 대화는 살아있는 인간끼리의 대화처럼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주인은 성모마리아 환영의 출현처럼 생각하게 해서 예수의 사랑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려고 했다. 외계인의 과학 기술은, 이런 일쯤은 식은죽 먹기처럼 할 수 있다. 베르나데트가 선택된 것은 아마도 지교의 순수함과 운명적인 요소에 의한 것일 것이다.

비슷한 사건으로 1917년 5월부터 6개월 간,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세명의 아이,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에게 발생한 성모 마리아 출현이 있다. 그리고 10월 13일에는 7만명의 대군중 머리위에 태양과 비슷한 비행접시모양의 물체가 출현해서 사람들은 성모마리아가 타고 있는 물체라고 대환성을 질렀다. 이 사건에 관해서 M씨는 파티마의 경우는 분명히 우주인의 활동이었다고 외계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한다. 루르드의 사건에 관해서는 질문한 적이 없다고 한다. 덧붙이자면, 일본에 나와있는 파티마 사건관련 책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3명의 아이들 이름 중 루시아는 루치아, 자신타는 야신타라고 써여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누군가가 쓴 책을 고스란히 베껴 온 것일 것이다. 필자는 루르드와 파티마의 양성지를 시찰했는데, 모두 종교적이라기 보다도 우주적 파동을 느끼게 하는 장소였다. 단 종교상의 기적적인 사건의 전부를 UFO와 연결 지으려는 의도는 없다. 계중에는 심령적인 것도 있기 때문이다.

예수는 금성으로부터 환생해서 왔다.

애덤스키에 의하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지구인에게 사랑의 철학을 전해주기 위해서 금성으로부터 지구로 환생해서 온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제 2혹성으로부터의 지구 방문자」에 언급되어 있다. 여기에서 환생이라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아직 과학적으로 미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인간의 생애는 단 한번 뿐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 같다. 그러나 우주적으로 각성하기 위해서는, 우주철학적으로 볼 때 이는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어쨌든 지구인의 정신과 과학이 장족의 진보를 이루면 환생 문제가 중시 될 것이다. 아무튼, 예수는

원래 “크리스도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 출현했던 것이 아니고 금성에서 실천되고 있는 우주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랑”의 철학과 그 실천법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크리스도교라는 종교단체로 만든 것은 후세의 인간들이다. 지구인은 종교만들기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고, 일본에서만도 현재 정부나 전국에서 승인된 종교단체가 23만개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구인은 분할이나 분열을 좋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애덤스키는 말하는 것이다. 통합과 분열을 되풀이 하는 것이 지구특유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헤겔의 변증법등이 생겨났을 것이다.

만물일체의 느낌이 중요

애덤스키가 전한 우주철학에 의하면, 지구인은 절대로 분할해서는 안될 것을 분할 시키기 때문에 진보가 느린것이라고 한다. 이것을 거꾸로 만물일체의 방침에 따라서 개발을 진행시킨다면, 모든면에서 급속히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인간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비약적인 진보를 이룰것이다. 만물일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추상적이지만, 인간의 경우는 “만물일체감”이라고 하는 느낌을 극한으로까지 밀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 점에서 「진보한 혹성의 사람들은 자신에 의해 관찰된 물체를 마치 자기자신인 것처럼 느끼면서 의식적으로 그 물체를 본다」고 애덤스키는 「생명과학」안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텔레파시, 원격투시 등의 능력개발의 근본적인 기초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구인의 감각으로는 무엇을 보아도 개별감, 분리감 밖에는 들지 않는다. 그 때문에 지구인의 육체세포의 중요한 기능을 가진 부분은 깊이 잠들어 버리고 텔레파시 등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육체의 개별감을 “전체”와의 일체감으로 새로 바꾸고 잠들어 있는 세포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습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우주의 의식」의 존재를 깨닫는일

가장 중요한 것은 대우주 전체를 하나의 의식체로 보고, 그 창조적 의식의 흐름이 만물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간도 그 창조적 의식의 흐름이 만물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자각 하는 것이다. 이 창조적 의식을 애덤스키는 “우주의 의식”이라고 부르고 있다. 통속적으로 말하면 신과 같은 뜻이 되겠지만 요컨대 우주에 꼭 차있다고 생각되는 “우주창조의 힘, 예지”이다. 우주공간에서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철학자나 유물론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학문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인식과 느낌의 문제이다. 초고차원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다른 혹성의 주민은 육체도 대단히 건강하고 수백세의 장수를 유지하며 병도 없다고 한다. 인간의 상념파동은 우선 자신의 육체의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구인이라도 「대우주가 자기자신이다.」라는 강렬한 상념과 긍정적인 느낌을 계속해서 가진다면 병에도 걸리지 않고 경이적인 장수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현재 지구의 의학도 조금은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PNI(정신신경면역학)이나 심신요법이 발달되고 있지만 외계인의 진보에 비교하면 아직 유아 단계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매우 중요한 UFO문제

UFO문제는 일부의 천문학자가 말한 “아이의 꿈”정도가 아니고, 지구의 운명에 관계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UFO는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라고 논의 하고 있는 사람들의 바로 옆에 까지 다른 혹성의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의 산물인 우주선이 와있고, 위대한 진화를 이룬 외계인이 정체를 알리지 않고 늘 접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유로, 애덤스키의 문헌류, M씨의 체험담, 필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체험, 다수의 저서나 자료 등을 총합해서, 나 나뉘대로 UFO와 외계인 문제를 언급해 보았다. 어쨌든 UFO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포함한 가장 중요한 현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